

순천, 신청사건립 시설공사 조달청 입찰절차 진행

건축 실시설계 기술제안...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오는 7월 신청사 건립공사 첫삽... 2025년 11월 완공

순천시가 지난해 12월 말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방식을 분리발주로 확정하고 입찰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건축분야(건축, 토목, 조경, 기계)를 포함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건설기술심의회에서 분리발주는 것으로 변경해 확정지었다.

시는 분리발주로 변경한 이유를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현행법상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분리발주 시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해 원가 이익을 높여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업체에 입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기존의 입찰방식인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난해 조달청과 체결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7월 신청사 건립공사 첫 삽을

들 예정이며, 25년 11월 신청사를 완공하여 입주 시작하고 26년 7월 기존 청사 철거 후 지하주차장 및 중앙공원을 조성해 신청사 건립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순탄하게 새해를 맞이한 만큼 신청사 건립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앞으로 신청사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농촌진흥시험 지원사업 추진

20개 사업 11억 3000만원 지원... 신청 접수

구례군은 새 기술 보급과 농촌 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0개 사업(총사업비 1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다음달 3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식량작물 분야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등 2개 사업 ▲원예작물 분야에 양념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 등 7개 사업 7개소 ▲축산분야에 양봉산물 생산비 절감 상품화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 육성 ▲귀농 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92개소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보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 되어있어야 하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현지심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마을 이장에게 배부한 사업 신청 안내서를 참고해 내달 3일까지 읍면농업인상담소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신기술을 지원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할 때"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가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 민선 8기 첫 읍·면민회장협의회 신년인사회

지역발전·현안 논의... "희망찬 보성 만들기" 다짐

보성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의 읍·면민회장 및 사무국장과 함께 지역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읍·면민회

장과 참석자들은 '지역발전', '읍·면민 화합', '공감과 소통' 등의 신년인사로 덕담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읍·면민의 날 행사'와 우리 고유의 지역 축제 재개 방안이 논의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총명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판다는 '토영삼굴'의 말처럼 여러 대안을 준비하여 지혜롭게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읍·면민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출범 이후도 중단 없는 발전으로 읍·면민회와 모든 군민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곡성 군민 91.8% "지역 삶에 만족한다"

필요 정책은 "안정적 직장 소득·일자리 창출"

곡성군이 2022년 곡성군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곡성군 828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소비소득, 복지, 교육 등 지역사회와 관련된 4개 부문 46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응답한 군민이 91.8%였다. 이외에 지역 생활, 행복 빈도 분야에서 5점 이상 응답률이 각각

90.1%, 90.3%를 나타내며 군민 대다수가 지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는 군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장 필요로 하는 자녀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직장 소득'이 28.4%를 나타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24.6%),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으로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6.6%)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필요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취업 상담 알선'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서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

리 마련'이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17.0%로 다음을 이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군민 중심 행복 시책을 마련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곡성군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황상연 기자

광양,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 등 논의의 장 마련



광양시는 본격적인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회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를 개최했다.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광양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2023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자문 수렴의 순서로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예비사업은 4개 분야(키우고-실천하고-연결하고-융합하고) 15개 사업을 통해 ▲교역하는 문화시민 양성 ▲문화거점 공간 구축 ▲도시 간 시민문화교역 네트워크 구축 ▲로컬 문화콘텐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시민 주체와 함께 짜임새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광양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 중심의 민-관-산 협력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의 문화적 정체성과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한 '문화 교역도시'라는 광양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시민, 예술가, 기업, 활동단체 등 시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예비사업을 성실히 체계적으로 수행해 반드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9월 지역적 특색과 광양항만의 문화적 해석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도시 간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교역도시'라는 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제5차 법정 문화도시에 신청한 지자체는 총 16곳으로 오는 10월 최종 평가를 통해 6개(예정) 지자체가 지정되며,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광양=조순익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7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작 수상작